

# 한강의 『채식주의자』에 나타난 불교적 기호

조 성 해\*

## 목 차

- I. 들어가며
- II. 불살생
- III. 사성제
- IV. 무아론
- V. 연기론
- VI. 나오며

**국문초록** | 본 연구는 한강의 『채식주의자』에 나타난 불교적 기호를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불교의 대표 교리, 불살생, 사성제, 무아론, 연기론을 해석 기준으로 삼는다. 첫째, 불살생이다. 채식주의자라는 표제에서부터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계율을 담고 있다. 주인공 영혜의 채식과 무식, 윗옷 탈의는 약육강식을 비판하고 온 생명체를 귀하게 여기는 불자의 태도와 상통한다. 둘째, 사성제이다. 영혜의 일생은 고통이며 그 원인은 생명 파괴의 죄악감이다. 해탈을 위해 그녀는 인간의 탈을 벗어 버리기를 수련한다. 채식과 거식부터 헷볕 흡수, 꽃 칠, 물구나무서기까지 수년에 걸쳐 수행한다. 의식이 분명하게 깐 채로 마음 도야를 하며 진취적으로 아를 소멸시키고 참자유를 얻게 된다. 불꽃을 방출하는 나무같이 빛을 내며 비존재로서 존재하게 된다. 셋째, 무아론이다. 선천적으로 야생 식물의 기운을 내뿜는 영혜는 항구적 실체 없이 역동적으로 변신해 나간다. 영혜를 주변 사람들과 자기 자신까지도 낯설어한다. 세상 사물이 그러하듯이 영혜는 한순간도 멈춰 있지 않고 변해 가고

---

\* 趙晟海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강사 ChoSungHai@ewha.ac.kr  
투고일: 2025. 04. 18. 심사완료일: 2025. 06. 26. 게재확정일: 2025. 06. 30.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5.48..233>

그것을 깨뚫은 그녀는 열반에 가까워진다. 넷째, 연기론이다. 영혜의 인생에 연기법이 반영된은 물론 영혜와 인연을 맺은 주변 인물들도 영혜와 서로 인과 관계를 이룬다. 평범하고 속된 남편에 비해서 형부와 언니는 영혜에게 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다. 영혜의 자하는 그들에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들은 번뇌한다. 영혜 꿈은 그들을 더욱 자극하는데 그 반응으로 형부는 본능 조절에 실패하고 언니는 본능을 극단적으로 제한한다. 어느 쪽이든지 중도의 길을 찾지 못하는 중생에 불과하다. 본 연구는 소설『채식주의자』에 대해 종교적 기호로 해설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한국의 문학 작품과 여타 예술 작품을 한국학적 기호로 탐구하는 연구들이 후행되기를 바란다.

핵심어 | 채식주의자, 불교, 불살생, 사성제, 무아, 연기

## I. 들어가며

1970년 광주에서 태어난 작가 한강(韓江)은 1993년 시인(詩人)으로 먼저 등단하였고 이듬해인 1994년부터 소설가(小說家)로서 창작 활동을 시작하였다. 계간지『문학과 사회』 겨울호에 <서울의 겨울>, <얼음꽃>, <유월>, <벳노래>, 네 편의 시를 발표하며 작가로 데뷔한 후 그다음 해에 서울 신문『신춘문예』에 단편 소설 <붉은 닷>이 당선되며 본격적으로 시인이자 소설가로서 작업을 이어 오고 있다.

한강의 대표작 중 하나인 『채식주의자』(2007)는 세 편의 단편 소설 「채식주의자」(2004), 「몽고반점」(2004), 「나무불꽃」(2005)을 하나로 엮어 출간된 3부작의 연작 소설이다. 그녀는 이 작품으로 2016년에 아시아인 최초로 영국의 맨 부커 국제 상(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을 수상하였고 2024년에는 제124회 노벨 문학상(Nobel Prize in Literature)을 거머쥐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평단에서는 이미 그전부터 한강과 그녀의 작품에 대해 흥미로운 담론을 형성하여 왔다.

선행 연구들<sup>1)</sup>은 대부분 이 작품을 생태주의(生態主義, ecologism), 여성

주의(女性主義, feminism), 생태여성주의(生態女性主義, ecofeminism)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소설 속 주인공의 채식 또는 거식 행위를 중심으로 하여 가부장 사회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저항 의식을 읽어 내기도 하였고 여기에 생태학을 접목해 인간 우위의 사고에 반대하고 동식물의 생명과 존엄성 회복으로까지 논의를 확장해 나가기도 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문명 대 자연, 인간 대 동식물, 남성 대 여성, 동물성 대 식물성, 육식 대 채식 등으로 이분화(二分化)된 관계를 전제하였다.

한편 전통적 폐미니즘과 에코폐미니즘의 이원론(二元論)적 사유에서 벗어난 연구들<sup>2)</sup>도 이루어졌다. 중심인물을 지배 이데올로기에 외면적 복종과 내면적 거부의 복합적 관계 속에서 생산된 우울증적 주체로 분석한 연구, 서사의 주체를 탈사회적·무의식적·개별적 인간 존재로 분석한 연구, 채식과 거식을 자본주의 사회 또는 주류 문화로부터 탈주하거나 그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행위로 분석한 연구 등이 보고되었다. 이들은 앞선 연구의 이분법적 논리를 따르지 않으나 거시적으로 지배 대 피지배, 폭력 대 비폭력과 같이 권력관계(權力關係)로 양분(兩分)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기존 담론과 궤를 같이한다.

- 
- 1) 김재경, 「소설에 나타난 음식과 권력의 문화기호학 -김이태 「식성」과 한강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2, 2009, 251-281쪽; 신수정, 「한강 소설에 나타나는 「채식」의 의미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문학과 환경』 9(2), 2010, 193-211쪽; 이찬규·이은지, 「한강의 작품 속에 나타난 에코폐미니즘 연구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46, 2010, 43-67쪽; 함정임, 「2000년대 한국 소설의 생태학적 고찰 -한강·편혜영·박형서·김태용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9(1), 2010, 213-234쪽; 김미영, 「음식의 문학적 재현과 주체화의 방식 -한강과 오수연의 소설에 나타난 「음식」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59, 2018, 239-270쪽.
  - 2) 우미영, 「주체화의 역설과 우울증적 주체 -한강의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0, 2013, 451-481쪽; 김지훈, 「한강의『채식주의자』에 나타난 자기서사와 자기실현의 문제 -서사의 주체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73, 2016, 507-531쪽; 이귀우, 「음식 소비와 (여)성: 한강의 '채식주의자'의 바틀비적 저항」, 『여성연구논총』 26, 2011, 135-158쪽.

이상에서 살펴본바, 한강의 장편 소설 『채식주의자』에 대하여 깊이 있는 탐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힘(power)을 중심으로 하는 논의에 집착해 있다. 이에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제기하며 본고에서는 불교적 기호(佛教的記號)를 근거로 하여 『채식주의자』를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sup>3)</sup> 한강은 여러 글을 통해 오랫동안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에 천착하여 온 만큼<sup>4)</sup> 이 작품에서도 생사의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 生(生)과 사(死)는 종교와 무관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불교(佛教)의 교리(教理)는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오늘날 한국에서 불교가 종교적 대표성(宗教的代表性)을 담보하는가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현대 한국 문화는 유교(儒敎)와 무교(巫敎)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며 최근에는 기독교(基督教)를 여기에 포함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sup>5)</sup> 물론 불교가 조선 시대(朝鮮時代) 억불(抑佛) 정책으로 인해 크게 약화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으며 1,650여 년 전 신라 시대(新羅時代)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종교이다.<sup>6)</sup> 그러므로 한국 문화(韓國文化)와 역사(歷史)를 이해하고자 할 때 불교를 논하지 않으면 반 이상은 설명이 되지 않을 만큼<sup>7)</sup> 한국 문화사에서 불교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3) 과거 평론가와의 대담에서 한강은 『채식주의자』의 종교적 해설 가능성을 열어 둔 적이 있다. 주인공의 행위를 인간의 어두운 측면을 대속하고자 하는 종교적인 고행으로 읽는 독자들이 있는데 이 소설을 쓰는 동안 그 점을 생각하였다고 답하였다. 한강·강수미·신형철, 「[대담] 한강 소설의 미학적 층위 -『채식주의자』에서 「흰」까지-」, 『문화동네』 23(3), 2016, 26쪽.

4) 초기작 『여수의 사랑』(1995)부터 『바람이 분다. 가라』(2010), 『소년이 온다』(2014), 『흰』(2016) 그리고 가장 최근작인 『작별하지 않는다』(2021)까지 다수의 작품을 들 수 있다.

5) 조성해, 「이불의 <화엄> 연작에 대한 불교적 기호 분석 연구」, 『문화와 융합』 45(7), 2023, 853쪽.

6) 조성해, 위의 논문, 853쪽.

7) 최준식,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 1』, 사계절, 2005, 353쪽.

또 극락(極樂)과 지옥(地獄)의 저승관, 전생(前生)·현생(現生)·내생(來生)의 윤회설 등이 발달한 불교에 비해 유교는 죽음관이나 사후 세계론이 막연하고 무교는 내세(來世)보다는 현세(現世)에 관심을 두는 기복 신앙(祈福信仰)의 성격이 강하다.<sup>8)</sup> 괴로움(苦)이라는 주제<sup>9)</sup>도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을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유교적 발상이나 세상을 창조해 놓고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기독교적 발상과는 거리가 멀다.<sup>10)</sup>

무엇보다 『아기 부처』(1999)나 『희랍어 시간』(2011) 등 몇몇 작품에서 불교적 소재가 사용된 만큼 한강의 소설에 불교적 세계관(佛教的世界觀)<sup>11)</sup>이 담겨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작가가 짊었을 때 불교 신자였다는 사실<sup>12)</sup>과 여전히 불교 신자인 아버지 한승원 작가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불교의 대표 교리, 불살생, 사성제, 무아론, 연기론을 중심으로 하여 『채식주의자』를 해석하여 보고자 한다.

- 
- 8) 최준식, 『한국인은 왜 틀을 거부하는가? -난장과 파격의 미학을 찾아서-』, 소나무, 2002, 29쪽; 최준식, 『(한국의 종교) 불교』,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108-114쪽; 조성해, 앞의 논문, 2023, 853쪽.
- 9) 제목을 짓기 전 소설에 붙여진 이름은 고통 3부작이었다. 한강·강수미·신형철, 앞의 논문, 2016, 27쪽.
- 10) 최준식, 앞의 책, 2005, 280쪽.
- 11) 윤정화, 「한강 소설에 나타나는 ‘흰’ 색채 이미지와 변이 양상」, 『비평문학』 78, 2020, 269쪽.
- 12) 과거 인터뷰에서 한강은 불교적인 소설로 『아기 부처』를 소개하며 불교와의 오랜 인연을 언급하였다. 특히 불교에 관심이 깊어졌던 1998년 28살 무렵부터는 불교 서적을 탐독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장세훈, 「소설가 한강 ‘아기부처’ -삼계화택 잡재운 관음미소-」, 『주간불교』, 2005. 11. 12., <http://www.bulgyonews.co.kr/news/9454>, 2025. 03. 24. 접속; 김연수, 「사랑이 아닌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강과의 대화-」, 『창작과 비평』 42(3), 2014, 317쪽. 이로 미루어 볼 때 『채식주의자』가 집필된 시기가 2002년 겨울부터 2005년 여름까지였으므로 불교 사상이 반영되었을 여지가 충분하다. 한강, 『채식주의자』, 창비, 2007, 245쪽. 『채식주의자』에 고통, 번민, 의식, 욕망, 찰나 등 불교적 어휘와 표현이 풍부하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 Ⅱ. 불살생

불법계(佛法界)에서는 불자(佛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율(戒律)을 다섯 가지로 제시한다. 세밀하게는 출가(出家)하여 승려(僧侶)가 된 사미가 따라야 하는 사미오계(沙彌五戒)와 재가(在家)의 신도가 지켜야 하는 신도오계(信徒五戒) 등으로 구분되나 사실상 모든 불교의 근본이 되는 규범(規範)은 대동소이하다. 그중 첫 번째로 꼽히는 계율이 바로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다.

불살생(不殺生, no killing)은 원시 불교(原始佛教)에서부터 제1 계율로 지정된 만큼 오계(五戒)의 가장 주요한 실천 윤리일 뿐만 아니라 여타 종교와 변별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주지하는 대로 종교라기보다는 정치 철학에 가까운 유교는 종교적인 사랑 덕목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고 인간 중심적 종교인 기독교 역시 자연 정복적 사고가 기저에 깔려 있다. 반면 불교에서는 생명(生命)을 인간과 동식물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지구상 모든 생명을 중시하고 보호하며 해치지 않을 것을 강조한다.<sup>13)</sup>

이 생명 존중 사상은 봇다(佛陀, Buddha)가 출가한 후에 얻은 깨달음(enlightenment)에서 비롯된다. 어느 날 봇다는 우연히 작은 벌레를 보게 되었는데 그 뒤에 큰 벌레가 작은 벌레를 잡아먹으려고 돌진하고 있었고 그 뒤에는 새가 큰 벌레를 잡아먹으려고 날아오고 있었다. 봇다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중생(衆生)들이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약육강식(弱肉強食)의 논리대로 사는 모습을 떠올린다. 이 일화에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일에서 조차 삶과 죽음이라는 종교적 문제를 끊임없이 궁리하는 자세를 엿볼 수

---

13) 화엄 학파(華嚴學派)에 따르면 하나가 바로 전체이고 전체가 바로 하나이기 때문에 (一即多多即一) 어떤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하나의 큰 생명체(生命體)를 해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 우주 만물은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으므로 생명 파괴는 불성 파괴라는 큰 죄를 짓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모든 생물을 소중히 여겨야 하며 단 하나의 생명체라도 해한다면 나의 불성을 훼손시키는 것과 같다.

있는데 이는 이후 모든 생명에 대해 사랑을 표방하는 평화 정신으로 이어져 불교의 기본 계율로 정착하게 된다.<sup>14)</sup>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제목에서부터 봉다의 무조건적 사랑, 즉 자비(慈悲)를 내포하고 있다. 또 표제작 「채식주의자」부터 「나무불꽃」에 이르기까지 채식(菜食)과 거식(拒食)은 소설의 기승전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모티프 (motif)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도 불교적 생명 존중 철학이 읽힌다.

먼저 「채식주의자」에서 주인공 영혜는 일련의 꿈을 계기로 채식을 선언하게 된다. 서술의 주체인 남편의 표현을 빌리면 그전까지 영혜는 누구보다도 평범한 사람이었다. 과분한 것을 선호하지 않는 자신의 기대에 걸맞은 외모와 조용한 성격, 열등감을 느낄 필요 없는 가정 환경과 경제력, 사회적 지위가 영혜를 아내로 선택한 이유였다. 그저 식사 시간이면 밥을 차려 주고 주기적으로 집을 청소해 주는 아내의 역할을 무리 없이 한다는 데에 만족하였다.

특별히 재미있지도, 특별히 권태롭지도 않은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오던 중 아내 영혜가 냉장고 속 육류(肉類)를 모두 버려 버리는 일이 발생한다. 이유를 묻는 남편의 질문에 꿈을 꿨다는 대답뿐이다.

헛간 같은 밝은 건물을 발견했어. 거적때기를 걷고 들어간 순간 봤어.  
수백 개의, 커다랗고 시뻘건 고깃덩어리들이 기다란 대막대들에 매달려 있는 걸. 어떤 덩어리에선 아직 마르지 않은 붉은 피가 떨어져 내리고 있었어. 끝없이 고깃덩어리들을 헤치고 나아갔지만 반대쪽 출구는 나타나지 않았어. 입고 있던 흰옷이 온통 피에 젖었어. (……) 내 손에 피가 묻어 있었어. 내 입에 피가 묻어 있었어. 그 헛간에서 나는 떨어진 고깃덩어리를 주워 먹었거든. 내 잇몸과 입천장에 물컹한 날고기를 문질러 붉은 피를 빨랐거든. 헛간 바닥 피 웅덩이에 비친 내 눈이 번쩍였어. 그렇게 생생할 수가 없어. 이빨에 씹히던 날고기의 감촉이. 내 얼굴이, 눈빛이. 처음 보는 얼굴 같은데 분명 내 얼굴이었어. 아니야, 거꾸로, 수없이 봤던 얼굴 같은데, 내 얼굴이

---

14) 최준식, 앞의 책, 2005, 268-269쪽.

아니었어. 설명할 수 없어.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생생하고 이상한, 끔찍하게 이상한 느낌을.<sup>15)</sup>

첫 번째 꿈에서 영혜는 날것의 고깃덩어리를 온몸에 피를 묻혀 가며 먹다가 혀간 바닥의 피 웅덩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때 아(我, self)의 밖으로 이탈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처음 보는 나의 얼굴은 끔찍하고 이상하다. 육식(肉食)의 폭력성(暴力性)과 자신에게 내재된 야수성(野獸性)을 마주하고 자기반성(自己反省)의 태도와 속죄(贖罪) 행위가 뒤따르게 된다. 고기는 물론 달걀도, 우유도 끓고, 땀구멍 하나하나에서 고기 냄새를 풍기는 남편과의 잠자리도 피하게 된다.

다시 꿈을 꿨어. 누군가가 사람을 죽여서, 다른 누군가가 그걸 감쪽같이 숨겨 줬는데, 깨는 순간 잊었어. 죽인 사람이 난지, 아니면 살해된 쪽인지. 죽인 사람이 나라면 내 손에 죽은 사람이 누군지. 혹 당신일까.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아니면 당신이 날 죽였던가…… (……) 이번 꿈이 처음이 아니야. 무수히 꿨던 꿈이야. 술에 취하면 예전에 취했을 때 기억이 나는 것처럼, 꿈속에서 지난 꿈 생각이 나. 수없이 누군가가 누군가를 죽였어. 가물가물한, 잡히지 않는…… 하지만 소름 끼치게 확고한 느낌으로 기억돼. 이해할 수 없겠지. 예전부터 난 누군가 도마에 칼질을 하는 걸 보면 무서웠어. 그게 언니라 해도 아니 엄마라 해도. 웬지는 설명 못 해. 그냥 못 견디게 싫은 느낌이라고밖엔. (……) 다만 그 비슷한 느낌, 오싹하고 더럽고 끔찍하고 잔인한 느낌만이 남아 있어. 내 손으로 사람을 죽인 느낌, 아니면 누군가 나를 살해한 느낌, 겪어 보지 않았다면 결코 느끼지 못할…… 단호하고 환멸스러운. 덜 식은 피처럼 미지근한. 무엇 때문일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져.<sup>16)</sup>

---

15) 한강, 앞의 책, 2007, 18-19쪽.

16) 한강, 위의 책, 36-37쪽.

첫 번째 꿈이 도축(屠畜) 이후 장면이라면 두 번째 꿈은 살인(殺人) 현장이다. 살해하고 살해당하는 사건이 무수히 반복된다. 죽인 이와 죽은 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데 살인자의 정체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살인 행위 자체의 끔찍함에 몰입된다. 영혜의 꿈들은 앞서 소개한 봇다의 일화와 통한다. 그녀의 꿈은 작은 벌레를 큰 벌레가, 큰 벌레를 새가 잡아먹는 야육강식 세계와 닮았으며 그녀가 느낀 기분은 봇다가 받은 충격에 대응된다.

죽음과 죽임을 향한 두려움, 끔찍함, 오싹함 따위의 감정은 꿈에 의해 촉발되기 전부터 영혜를 줄곧 괴롭혀 왔다. 전술한바, 누구보다도 평범한 사람이었던 영혜에게는 유별난 점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브래지어 착용에 예민하다는 점이었다.

결혼 전에도 속옷이 가슴을 조여 숨을 막히게 한다는 이유로 종종 속옷을 입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착용하게 되어도 일 분만에 호크를 풀어버렸다. 어느 날부터는 집에서 아예 속옷을 벗는 게 일상이 되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자 친정 식구와의 모임이나 남편의 직장 상사와의 모임에까지 브래지어를 하지 않고 가슴 윤곽을 그대로 드러낸 채 참석하게 된다. 그 까닭은 그녀의 독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픈 건 가슴이야. 뭔가가 명치에 걸려 있어. 그게 뭔지 몰라. 언제나 그게 거기 멈춰 있어. 이젠 브래지어를 하지 않아도 덩어리가 느껴져. 아무리 길게 숨을 내쉬어도 가슴이 시원하지 않아. 어떤 고함이, 울부짖음이 겹겹이 풍쳐져. 거기 박혀 있어. 고기 때문이야. 너무 많은 고기를 먹었어. 그 목숨들이 이 고스란히 그 자리에 걸려 있는 거야. 틀림없어. 피와 살은 모두 소화돼 몸 구석구석으로 흘어지고 찌꺼기는 배설됐지만 목숨들만은 끈질기게 명치에 달라붙어 있는 거야.<sup>17)</sup>

---

17) 한강, 위의 책, 60-61쪽.

영혜에게 브래지어는 단순히 불편한 속옷이 아니다. 가슴을 압박하여 명치에 걸린 목숨을 느끼게 하는 존재이다. 그간 거리낌 없이 먹은 고기들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생명인 것이다. 영혜의 대사와 독백에 따르면 꿈을 꾸기 전에는 답답함을 느꼈을 뿐 배설되지 않은 고깃덩어리로 인한 고통(苦痛)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는데 꿈이 기제가 되어 비로소 그 원인(原因)을 자각(自覺)하게 된다. 즉 무의식(無意識)의 영역에 잠재되어 있던 생물 파괴에 대한 죄의식(罪意識)이 의식(意識)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된다.

결국 영혜가 꾼 꿈들과 브래지어가 주는 압박감은 생명을 해치는 것에 공포심과 환멸감을 느끼게 하고 자기 자신도 아무렇지 않게 생명을 파괴해 왔음에 혐오감과 죄책감을 들게 만든다. 꿈을 꾸기 전까지는 때때로 브래지어를 벗는 일탈을 했을 뿐이라면 꿈을 꾼 후로는 한결같이 속옷 착용과 육류 섭취를 거부하며 본격적으로 불살생을 실천한다.

영혜의 변화(變化)는 다른 사람들, 여러 공동체와 충돌하며 갈등을 겪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남편과 부딪쳤으며 남편 회사 동료와의 만남에서 연출된 불편한 상황도 위에서 거론된 바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다툼은 친정 식구와의 모임에서 일어난다.

영혜의 가족은 육식을 상징하는 집단이며 그중에서도 아버지는 살생(殺生)과 폭행(暴行)을 일삼는 무자비(無慈悲)한 인물이다. 그는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남인 일곱 명을 죽이고 무공훈장을 받은 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긴다. 아홉 살의 영혜를 공격한 애완견 흰등이를 오토바이에 묶고 달리면서 잔인하게 도살하고 잔치를 벌여 동네 사람들과 개고기를 나눠 먹은 적도 있다. 또 영혜와 언니, 남동생, 세 남매에게도 폭행을 서슴지 않았다. 세 남매는 이런 시절에 뺨을 맞기 일쑤였고 유독 구타를 당한 영혜는 열여덟 살이 될 때까지 종아리를 맞으며 자랐다.

피해자(被害者)인 가족들도 그들보다 약한 자를 공격하는 가해자(加害者)로 묘사된다. 남동생은 다혈질적인 성격, 폭력 행사 등 아버지를 그대로 빼닮은 인물이고 그보다는 덜하지만 어머니와 언니도 야수성이 다분하다.

손수 활어회를 뜨거나 정육점용 칼로 닭을 잘게 토막 내는 등 살생에 능숙하였다. 영혜마저도 고기를 다루는 요리 솜씨가 좋았고 맨손으로 비퀴벌레를 때려잡을 줄 아는 생활력도 있었다. 고기 굽는 연기와 마늘 타는 냄새가 자연스럽게 연상될 정도로 모두가 유난히 육류를 즐기는 편이었고 특히 육회를 즐겨 먹었다. 영혜의 식성 변화로 고기 맛을 못 본다는 그의 말에 경악과 사죄, 다짐의 말을 건네는 이들이었다.

혈육이 아닌 남편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물리적으로 폭행을 휘두르지 않았을 뿐 그가 영혜를 대하는 자세는 그 누구보다도 폭력적(暴力的)이다. 브래지어를 답답해하는 영혜를 이해하기는커녕 과민한 사람으로 치부한다. 오히려 남에게 소개할 때 본인의 체면이 서도록 영혜가 보정 속옷을 입기를 원한다. 게다가 불면증을 초래한 꿈 이야기에 조차 무관심하다. 그저 영혜가 집안일을 해 주는 파출부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테에 만족하고 간혹 성욕을 채우는 대상으로 이용할 때 때문이다.

설령 영혜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지라도 정신과 치료나 상담 따위는 고려 사항이 아니었고 실제로 수개월의 병원 생활을 마친 영혜를 망가진 물건을 폐기하듯이 냉정하게 버린다. 현실(現實)과 타협(妥協)하여 현실에 안주(安住)하고 사는 그에게 영혜는 평범한 사람이어야 했다. 그런데 채식주의자(菜食主義者)가 된 영혜는 더는 평범하지 않은 것이었다.

남편의 회사 사람들이 육식을 본능(本能)이라고 말하며 채식을 본능을 거스르는, 부자연스러운 행위로 평가하였듯이 영혜의 식구들도 이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원만하지 않은 행위로 규정한다. 가족 모임 전부터 수차례 전화로 영혜를 타이르고 식사 자리에서는 언니부터 어머니, 아버지까지 차례로 각종 육류를 권한다. 그리고 대화로는 설득이 불가능하자 세차게 그녀의 뺨을 때리는 아버지를 필두로 하여 가족 구성원들이 합세해 억지로 영혜의 입에 고기를 쑤셔 넣는다.

그때 영혜의 저항성(抵抗性)이 폭발한다. 과도로 자신의 손목을 긁는 자해(自害)로 응수한 것이다. 영혜를 회유하려는 가족, 특히 육식을 강제하려는

아버지에 맞서 생명 중시 운동을 적극적으로 행한다. 어린 시절에 요령 없이 아버지의 손찌검을 당하기만 했던, 산에서 길을 잊었을 때 아버지가 있는 집에 돌아가지 말자며 회피하기에 그쳤던 영혜는 소극성(消極性)을 탈피(脫皮)한다.

영혜의 수행(遂行)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소설의 마지막 장인 「나무 불꽃」에서 영혜는 육식은 물론 채식마저도 원하지 않는다. 정신 병원 입원 중에 나무 꿈을 꾸고 나서부터 고기를 포함한 인간의 음식은 일절 먹지 않겠다고 공표한다. 햇빛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믿으면서 언니 인혜에게 음식은 필요 없고 몸에 물을 맞아야 한다고 말한다. 채식을 넘어 무식(無食)에 이르게 된다.

동기를 알 수 없는 채식과 더욱더 까닭 모를 거식으로 영혜는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다. 따가운 눈길을 보내는 남편의 직장 사람들이나 달가워하지 않는 가족과 대립하였듯이 영혜는 병원의 의료진과도 마찰을 빚는다. 의사와 간호사, 보호사, 간호조무사가 동원되어 영혜의 사지를 묶고 강압적으로 음식을 주입하려고 한다. 영혜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온 힘을 다해 거칠게 저항(抵抗)한다. 끝내 의사가 그녀의 코에 튜브를 쑤셔 넣자 음식을 게우려고 하면서 피를 토해 낸다.

일체의 섭식 거부는 최소한의 희생(犧牲)도 용납하지 않는 행동이다. 생명체를 해치는 것을 강요하는 이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거세게 대항(對抗)하며 불살생의 정점에 도달하였음을 함의한다. 현실 세계에서 승려나 일반 신도들에게도 식물 섭취까지는 허용이 되는데<sup>18)</sup> 영혜는 그것을 뛰어넘는 경지에 다다른 것이다.

---

18) 채식은 불살생의 원칙하에 용인된 최소한의 희생이다. 최준식, 앞의 책, 2005, 428쪽.

### III. 사성제

2,500여 년 동안 불교는 수많은 사상(思想)과 종파(宗派)가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하며 거듭 발전되었다. 인도에서 기원하여 중국, 한국, 일본 등으로 확장되며 그곳의 습속에 맞게 절충되고 변형되었다. 교파(教派)가 현란하게 발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가르침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공통적으로 반드시 포함되는 교리로는 사성제와 무아론, 연기론이 대표적이다.<sup>19)</sup> 사성제(四聖諦, four noble truths)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眞理)를 말한다. 봇다가 깨달음을 얻고 최초로 설한 법(法)으로 불교의 기본 교리이다.

첫째, 고제(苦諦)는 삶은 곧 괴로움이라는 진리이다. 세상 만물이 고통(一一切皆苦)이라는 것인데 이는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로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전통적으로 사고(四苦) 또는 팔고(八苦)로 범례화되었다. 전자는 생로병사(生老病死)로 설명되고 후자는 그것에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는 괴로움(愛別離苦), 증오하는 이와 대면하는 괴로움(怨憎會苦),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求不得苦),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의 오음(五陰)에 탐욕(貪慾)과 집착(執着)이 번성함으로 인한 괴로움(五陰盛苦)이 더해진다.

둘째, 집제(集諦)는 고통의 원인에 관한 진리이다. 일반적으로 탐(貪)·진(瞋)·치(痴)를 드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원인을 탐욕이라고 본다. 이때 돈, 권력, 명예 따위를 향한 욕심(欲心)보다도 그 심층에 깔린 존재 욕구(存在欲求)에 주목한다. 자아(自我, ego) 개념은 자기중심적(自己中心的) 사고를 낳고 그로부터 내 것이라는 생각이 파생되는데 욕망(欲望)이 충족되지 못하면서 고통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셋째, 멸제(滅諦)는 자기의식(自己意識)이 소멸(消滅)하면 고통이 사라진다는 진리이다. 자의식이 꺼진다는 것은 잠재되어 있는 모든 갈망, 애증

---

19) 최준식, 위의 책, 276-277쪽; 최준식, 『최준식 교수의 세계 종교 이야기』: 종교를 알면 세계가 보인다, 모시는사람들, 2012, 48-50쪽.

따위가 완전히 절멸(絕滅)하여 더 이상 마음이 작용하지 않는 죽음의 상태를 지시한다. 그것을 해탈(解脫, moksha) 또는 열반(涅槃, nirvana)이라고 부른다. 열반에 도달한 자는 살아 있으면서도 죽은, 삶과 죽음이 동시에 일어나는 영생(永生)의 경지에 들어서게 된다. 이처럼 자기중심적 사고를 극복하여 나를 초월하고 해탈하는 것은 수행의 최종 목표가 된다.

넷째, 도제(道諦)는 영적 구원법(靈的救援法)에 관한 진리이다. 자아를 어떻게 초월(超越)하는가 하는 방법을 고행(苦行)과 쾌락(快樂) 사이의 중도(中道, middle path)로 제시한다. 중도는 보통 여덟 가지의 바른길인 팔정도(八正道, eight fold path)를 가리킨다. 바른 견해의 정견(正見), 바른 생각의 정사유(正思惟), 바른 말의 정어(正語), 바른 행동의 정업(正業), 바른 생활의 정명(正命), 바른 노력의 정정진(正精進), 바른 의식의 정념(正念), 바른 집중의 정정(正定)이 그것이다.

출가 전까지 쾌락적인 삶을 향유하던 봇다는 출가 후 육 년간 고행을 겪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절식(絕食)과 좌선(坐禪)이다. 사십구 일 동안 속세(俗世)의 고통을 끝내고 깨우침을 얻고자 단식(斷食)을 시행한다. 금욕(禁慾) 수행으로 눈은 움푹 파이고 쇄골과 늑골은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배와 등은 서로 맞닿을 정도로 마르게 된다.



도 1. 봇다의 고행상

그렇게 보리수(菩提樹) 밑에서 좌정(坐定)하고 정신(精神)을 한 곳에 집중한다. 번뇌(煩惱)의 씨앗을 근절하고 스스로가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 보리수 아래에 가부좌(跏趺坐)를 틀고 앉아 외부 유혹과 자극을 외면하면서 내면의 싸움을 지속한 것이다. 칠여 일을 명상(冥想)에 매달린 끝에 남아 있는 도반(道伴) 없이 홀로 윤회(輪迴)의 사슬을 끊어 내는 데 성공한다(도 1).<sup>20)</sup>

자기의식이 꺼져 전생에서부터 누적된 수많은 업(業)을 청산하고 더 이상의 업보(業報)도 쌓지 않게 된다. 봇다라는 말의 원뜻처럼 눈을 뜬 자 또는 깨달은 자가 된다. 열반으로 이끄는 것은 굶기와 같은 신체적 결핍이 아니라 정신 수양(精神修養)과 통찰력(洞察力)임을 깨닫는다. 사성제와 팔정도를 바탕으로 하여 세속(世俗)적 고통을 없애는 방법으로 중도를 설파(說破)하게 된다.

이때 영적인 길로 인도하는 방법에 있어 개인의 판단을 신뢰하고 중시한다는 점은 다른 세계 종교와 차별되는 특징이다.<sup>21)</sup> 기독교, 유대교 등 유신론적 종교에서 신은 근본 원리 또는 제1 원리이다. 그 조물주이자 마지막 예언자 혹은 심판자를 굳건하게 믿으며 구원받기를 기다린다. 불교에서는 유일신이나 구세주 등 어떤 대상이나 그 대상의 능력을 믿도록 하지 않는다. 외계(外界)의 권위에 복속(服屬)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치권(self-autonomy)을 행사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그와 관련하여 유명한 법설(法說)이 전해진다. 봇다는 수행법을 묻는 제자에게 법을 등불 삼아 스스로를 밝게 비추면서 나아가라(自燈明法燈明)고 일렀다. 봇다가 일깨워 준 진리에 의지해 어두운 사바세계(娑婆世界)를 해쳐

20) 당시 봇다의 모습은 파키스탄 라호르 박물관(Lahore Museum)에 전시되어 있다.

붓다의 고행상(Fasting Buddha)은 파키스탄의 3대 보물이자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불상(佛像) 중 하나로 꼽힌다. 사진 출처는 국가유산진흥원의 보도 자료임을 밝힌다. 안인영, 「한·파 수교 40주년 기념 문화유산 사진전 개최」, 『한국문화재단』, 2023. 10. 27., <https://www.kh.or.kr/>, 2025. 03. 09. 접속.

21) 최준식, 앞의 책, 2005, 260-262, 300쪽.

나가라고 역설하면서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주체적으로 판단하기를 간청하였다. 오로지 홀로 서서 독존(獨存)할 것을 가르친 것이다. 그 길은 상당한 고통을 동반하지만 성숙하고 완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편(方便)이다.

『채식주의자』에서는 고통스러운 삶과 그 원인이, 「몽고반점」과 「나무불꽃」에서는 고통을 없애기 위한 고행과 그 종착점이 순차적으로 기술된다. 주인공 영혜의 삶은 괴로운 일의 연속이다.<sup>22)</sup> 어릴 적 유독 가정 폭력의 대상이 되어 짐작 못 할 것들이 뺏속까지 스며들어 버렸다는 언니의 진술, 아홉 살 때 길을 모르는 산에서 집보다 더 안정감을 느낀 일화 등은 불우한 유년 시절을 짐작하게 한다. 수도승과 같이 담담한 표정은 성인이 되어서도 처지가 다르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 무표정한 얼굴은 상상 밖의 지독한 것들이 이 삭고 삭아 내면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난 뒤의 표면에 비유된다.

또한 아무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영혜의 대사처럼 소설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제대로 공감받지 못하고 수용되지 못한다. 중심 인물임에도 작품에서 서사의 주체로 드러나지 못하고 타자화(他者化)되어 묘사되어 있기도 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울임꼴의 서체로 구별되며 그 밖의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관찰되는 대로 기록된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속한 집단 안과 밖에서 육식과 섭식을 강요당하며 끔찍한 일들을 겪는다.

표충적으로 영혜를 괴롭히는 요인은 주변 사람들로 나타나지만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살생<sup>23)</sup>에 있다. 그녀는 자신이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상대

---

22) 이 연구에서는 중심인물인 영혜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그녀의 언니, 형부, 전남편의 삶도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가령, 언니는 하혈, 불면증, 우울증 등 육신과 정신이 온통 고통 속에 파묻혀 있다. 형부는 그의 전부라 할 수 있는 가족과 직업을 잃고 전남편은 본인이 그토록 바라던 평범한 인생을 빼앗긴다.

23) 한강은 오랫동안 인간의 잔인함과 폭력성에 관한 질문이 있었고 그것을 절박하게 풀어야 할 인생의 숙제로 여겼다. 이 소설을 쓰는 동안에도 그것은 가장 큰 고민이었다. 한강·강수미·신형철, 앞의 논문, 2016, 10, 26쪽.

를 잡아먹어 벼려야 한다는 세상의 사고방식을 맹목적으로 따르며 거리낌 없이 생명을 해치고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먹곤 했다. 약육강식 세계에서 육식은 생존 수단(生存手段)이기에 생을 향한 집착(執着)으로 육식을 정당화 해 왔다.

그러나 꿈속 괴 응덩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는 순간 직관적(直觀的)인 깨달음을 얻는다. 내가 남을 바라보는 또는 남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전환되어 자기 대상화(對象化)를 경험하고 육식의 친인성(殘忍性)을 자각 한다. 특히 가족 구성원들이 영혜를 포박하여 강제로 고기를 먹이려 할 때 어린 시절부터 은연중에 남아 있던 트라우마(trauma)가 상기된다. 육질을 좋게 만든다는 이유로 달리는 오토바이에 매고 고통스럽게 도살(屠殺)한 개를 아무런 가책(呵責)도 느끼지 못한 채 먹은 사건이다.

난폭하게 영혜를 몰아세우는 아버지와 남동생, 그들을 방관하는 식구들은 애완동물이었던 흰둥이가 죽어 가는 광경을 그저 구경하기만 한 영혜와 겹쳐진다. 자해 소동 뒤에도 자기를 아프게 하는 것은 몸속 가득한 고깃덩어리와 명치에 걸린 목숨뿐이라고 진술한다. 사바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자가 생로병사의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하듯이 영혜의 경우에도 살고자 하는 욕망과 죽음을 피하려는 갈망, 그로 인한 생명 과괴가 죄책감이라는 고통을 야기한 것이다.

그 결과 영혜는 나라는 개념에서 탈피하기를 시도하게 된다. 나로 존재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으며 채식부터 무식까지 고행을 견뎌 낸다. 육류를 끊었을 때부터 그녀는 이미 하루하루 여위어 갔고 병자처럼 헬쑥해졌으며 병원에서 곡기를 완전히 끊고 나서는 사망이 염려되는 기아 상태가 된다.

얼굴과 목과 어깨, 팔과 다리에 조금도 살이 남아 있지 않은, 흡사 재해 지역의 기아 난민 같은 모습이다. 뺨이며 팔뚝에 긴 솜털이 자라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마치 아기들의 몸에 자라는 것 같은 솜털이다. 오랜 굶주림으로 호르몬의 균형이 깨진 탓이라고 의사는 설명했었다. 영혜는 다시 어린아이

가 되려는 걸까. 생리는 멎은 지 오래고 몸무게가 삼십 킬로그램도 안 되니  
가슴이 남아 있을 리 없다. 모든 이차 성징이 사라진 기이한 여자아이의  
모습으로 영혜는 누워 있다.<sup>24)</sup>

석 달을 굽으면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일까? 머리까지 작아져 성인의  
얼굴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영혜의 얼굴은 조그맣다.<sup>25)</sup>

피골이 상접해 죽어 가는 자로 묘사되는 영혜는 흡사 해골의 모습이었던  
붓다를 연상시킨다. 붓다가 절식 고행을 하며 몸을 완전히 망쳐 버리게 되었  
듯이 영혜도 지독한 수행을 연속하며 생존 문제에 직면한다. 열반 세계에  
다다르기 직전의 굽주림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흥미로운 점은 자의식 소멸이 섭식 거부 자체가 아니라 인간에서 나무로  
변신(變身)함으로써 달성된다는 점이다. 영혜는 식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  
며 점진적인 변이(變移)를 보인다. 「몽고반점」에서는 햇빛 쪘기와 보디 페인  
팅(body painting)으로, 「나무불꽃」에서는 거식과 물구나무서기의 형태로  
표출된다.

「몽고반점」에서는 영혜가 식물이 되어 가는 과도기적 양상을 다룬다.  
햇빛 쪘기는 붓다의 설법, 자동명 법등명의 시각적 표현으로 「채식주의자」에  
서부터 상의 탈의와 맞물려 나타나고 「몽고반점」에서 심화된다. 자살 소동  
직후 영혜는 상체를 벌거벗은 모습으로 병원 분수대 앞에서 발견되고 그  
후 폐쇄 병동 생활 중에도 수시로 가슴을 노출시키고 햇빛을 쪘려고 하여  
퇴원이 지연된다.

퇴원한 뒤에도 베란다에서 햇볕을 쪘며 낮 시간을 보냈으며 재차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이 되고 나서도 별이 강한 날이면 창밖을 향해 가슴을  
드러내기 일쑤였다. 형부와 교접을 한 직후에도 나신으로 베란다에 서서

---

24) 한강, 앞의 책, 2007, 183쪽.

25) 한강, 위의 책, 188쪽.

햇볕을 받는다. 식물이 생명 유지를 위해 광합성(光合成)을 하듯이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이다. 탈(脫)인간의 전조 증상이라 하겠다.

영혜의 탈인간주의적 행동은 보디 페인팅으로 증폭된다. 영혜의 둔부 가운데에 또렷하게 남아 있는 연둣빛의 몽고반점(蒙古斑點)은 형부의 새로운 작업에 영감이 된다. 영혜는 나체로 세 번의 촬영에 임하게 되는데 첫 녹화는 혼자서 하고 두 번째는 형부의 남자 후배와 함께 하고 마지막은 형부와 함께 한다. 형부의 예술 활동에 참여하며 영혜는 고통을 끝내는 방법을 깨닫는다.

첫 촬영 때 영혜의 나신은 전면에 낮의 꽃이, 후면에 밤의 꽃이 그려진다. 무슨 까닭인지 영혜는 꽃 그림을 지우고 싶지 않았고 그날 밤부터 꿈을 꾸지 않는다. 다음 녹화에서는 다른 꽃과 교감하며 그것과 하나가 되고 싶어하고 결국 마지막 시도 끝에 영혜의 소망은 실현된다. 그리고 꿈에 등장한 낮의 얼굴, 처음 보는 얼굴, 피투성이가 된 얼굴, 썩어서 문드러진 얼굴이 뱃속에서부터 올라왔음을 알아차린다. 뱃속 얼굴들은 영혜 본인이었던 것이다. 육류만 멀리하면 꿈을 꾸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살생의 업보가 쌓인 육신(肉身)을 파멸(破滅)해야 함을 자각한다.

영혜의 형부와 언니는 그녀의 식물화(植物化)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하게 되는데 형부에게는 성스러운 것으로, 언니에게는 기묘한 것으로 포착된다. 형부의 시선에서 몽고반점은 고귀한 태고(太古)의 흔적이자 인간 이전 상태로 회복(回復)의 상징이었고 그것과 조화롭게 낮의 꽃과 밤의 꽃으로 뒤덮인 영혜의 몸은 모든 욕망이 배제된, 온갖 군더더기가 제거된 육체였다. 생생하게 살아 있는 몸인 동시에 덧없이 부서져 내리고 있는 몸이었다. 그에게 영혜는 식물이면서 동물이면서 인간이기도 한, 혹은 그 중간쯤의 낮선 존재로 비친다.

그는 영혜의 몸을 도화지 삼아 꽃을 그리며 근원(根源)을 건드리는 감동과 전율을 느낀다. 그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감각으로 가득 차 다채로운 색감이 분출된다. 그의 후배와 영혜를 캠코더에 담아낼 때는 흡사 거대한

식물들이 서로 교합을 이루는 듯이 기괴하게 움직이는 형상에 압도되고 본인이 영혜와 한 몸이 되는 순간에는 견딜 수 없는 만족감이 일어난다.

자의로 영혜의 식물화를 돋는 형부와 달리 언니 인혜는 우연히 두 사람의 성행위 광경을 맞닥뜨리게 된다. 그런 인혜에게조차 그 둘이 덩굴처럼 알몸으로 얹혀 있던 영상은 사람이 아닌 존재들로 낯설게 각인된다. 그것은 꽃, 잎사귀, 푸른 줄기로 뒤덮인 몸이었고 그 움직임은 인간에서 벗어나오려는 행위에 가까웠다.

「나무불꽃」에서 영혜는 마침내 식물성(植物性)을 이룬다. 거식은 신체 퇴행(身體退行)과 언어 상실(言語喪失)을 가져온다. 오랜 단식으로 자기 몸이 퇴화(退化)되었다는 영혜의 말처럼 인간이라는 껌데기를 부숴 나간다. 엉덩이에 찍혀 있는 몽고반점이 암시한 대로 이차 성징 이전의, 진화되기 이전의 몸으로 회귀하여 동물과 같이 성별 구분이 절대적이지 않은 식물적 특성을 획득하게 된다. 자신이 존재하려는 욕구는 점점 희미해진다.

또 성인이 되면서 더욱더 말수가 적어진 영혜는 극단적인 단식으로 또렷하게 발화하는 일마저 드물어진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말을 잃는다. 인간의 말과 생각까지 사라지게 되면 자기가 동물이 아니게 되리라고 믿는다. 그녀는 말에 갇히지 않고 선불교(禪佛教)적 수양법(修養法)<sup>26)</sup>에 의존해 열반의 세계로 접어든다.

물구나무서기도 마찬가지이다. 병원에서 언니 인혜는 기괴하게 물구나무

26) 봇다가 고된 수행을 거쳐 영적 구원을 얻게 되었기에 불가(佛家)에서는 개인의 마음 공부에 관심을 가진다. 수련(修鍊) 방법은 종단마다 상이한데 선종이 주를 이루는 한국 불교에서는 수행과 직관력(直觀力), 그에 따른 깨달음을 강조한다. 언어나 이성을 불신(不立文字)하고 참선(參禪), 참구(參究)하며 깨치기(教外別傳)를 방편으로 삼는다. 이처럼 동양 전통에서는 대부분 언어가 끊어진 영역에 진리가 있다고 본다. 반면 서양 철학이나 신학에서는 언어와 이성을 더 신뢰하는 편이다. 가령 성경 요한 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에서 말씀은 언어, 이성을 뜻하는 로고스(logos)이다. 기독교나 이슬람 등 셈족의 종교에서 경전은 신의 계시 그 자체이므로 절대적이다. 최준식, 앞의 책, 2005, 343-345쪽.

서 있는 영혜를 본다. 간호사는 벌써 삼십 분째라고, 이를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병실에 들여보내도 지속된다고 말한다. 이전까지 깨침이 전부 그러하였듯이 물구나무서기의 시발점도 꿈이었다.

꿈에 말이야, 내가 물구나무서 있었는데…… 내 몸에서 잎사귀가 자라고 내 손에서 뿌리가 돋아서…… 땅속으로 파고들었어. 끝없이, 끝없이…… 사타구니에서 꽃이 피어나려고 해서 다리를 벌렸는데, 활짝 벌렸는데…… (……) 나 몸에 물을 맞아야 하는데. 언니, 나 이런 음식 필요 없어. 물이 필요한데.<sup>27)</sup>

나무 꿈을 꾸기 전 영혜는 숲에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숲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마치 한 그루의 나무처럼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다가 발견된다. 그리고 꿈을 꾸는데 나무들이 똑바로 선 것이 아니라 팔로 땅을 바치고 서 있는 것임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때부터 식물화를 지향하며 물구나무서기 를 시작한다. 스스로 나무가 되었다는 생각에 불가해한 미소를 짓는다.

이렇듯 영혜는 또다시 꿈을 통해 직관적으로 속세적 고통을 전부 멀하는 방법을 통찰하게 된다. 물구나무를 서고 한참 그 자세를 고수하는 수행을 거듭한다. 자기의식을 불어서 꺼버리는 일은 한두 번만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마음 집중(集中)과 업보 소탕(業報掃蕩)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탈의 경지로 나아간다.

고행 끝에 영혜는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의학적인 판정에도 불구하고 오직 햇빛을 쬐며 물만 마시면 살 수 있다고 믿게 된다. 살생이라는 업보를 청산하고 나라는 존재와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자 번민(煩悶)이 전부 절멸된다. 인간에서 식물로 변신하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이게 되고 머지않아 죽어 있으면서 살아 있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임<sup>28)29)</sup>을 암시한다.

---

27) 한강, 앞의 책, 2007, 180쪽.

28) 서로의 영역을 넘나드는 삶과 죽음 관념은 한강 소설 전반의 색채 이미지에도 스며

나로부터 자유(自由)를 얻음으로써 윤회의 사슬에 얹매이지 않게 된다.

나무로 재탄생되는 영혜에게서 광명(光明) 같은 불꽃이 발산된다. 생과 사를 관통하는 빛 이미지를 넘어 후광(後光)이 나는 성자(聖者)와 결부된다. 고뇌(苦惱)로부터 해방(解放)될 미래를 예기라도 하듯이 물구나무서기 수행을 하던 영혜는 마치 좋은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얼굴이 빛난다. 식물이 되어 간다는 상상에 불가사의한 미소가 얼굴을 환하게 밝히고 이 급격한 변신의 시발점이었던 날을 회상하며 눈빛이 열기를 띤다. 괴로움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을 직시하면서 광채(光彩)를 발하게 된 것이다.

발광(發光)하는 나무가 될 조짐은 그전부터 흔적을 남기고 있다. 영혜의 맨몸을 신성시한 형부는 그녀의 몸에 오랜 태양 빛이 고여 있다고 묘사한다. 광합성을 하는 식물처럼 시시때때로 태양광을 흡수한 결과이다. 또 형부의 꿈속에서 광원(光源)을 내뿜는 반인반목(半人半木)의 여인은 영혜로 귀결된다. 불살생을 상징하는 젖가슴의 황금빛 물감도, 활활 타오르는 꽃 같은 영혜의 육체도 나무 불꽃과 강하게 결속된다.

이상의 모든 과정을 영혜가 자력(自力)으로 수련하고 깨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 자립성(自立性)은 매우 강한 힘으로 묘사된다. 처음 고기를 버리던 날 영혜의 남편은 얼굴에 뜨거운 열이 달아오르도록 힘을 주고서야 아내를

---

있다. 흰색, 흰빛, 나아가 어느 물질과도 결합될 수 있는 관형어 흰으로 생사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그로써 그 둘의 경계를 해체하고 다시금 투명, 비어 있음, 공(空)으로 이행한다. 색이면서 색이 아닌 비색(非色)의 색은 삶이면서 죽음인 이미지이다. 한강·강수미·신형철, 앞의 논문, 2016, 17쪽; 윤정화, 앞의 논문, 2020, 239~269쪽. 그러한 관념은 『채식주의자』를 예비하는 전작 『내 아내의 열매』, 죽음에서 소환된 유령 화자가 등장하는 『소년이 온다』, 사망하였음에도 동생의 기억 속에서 불멸할 언니 이야기 『흰』 등에서도 확인된다.

29) 대승(大乘) 불교의 시각에 대입하면 거짓 자아(假我)를 극복하고 참된 자아(眞我)를 획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식물을 얻은 탈신(脫身)의 영혜는 원형적인 것, 근원적인 것에 대응된다. 인간적 속성은 꺼지지만 끝이 아니라 식물로 환골탈태하여 새로운 자아로 환생(還生)하는 것이다.

저지할 수 있었고 병원에서 의료진들은 영혜의 코에 튜브를 삽입하기 위해 여럿이 힘을 모아야 했다.

그뿐 아니라 소설에서 화자로 등장하지 않는 영혜의 몇 마디 없는 대사 중에 유일하게 반복적으로 또렷하게 전달되는 발언은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30, 48-49쪽), ‘저, 안 먹어요’(48쪽), ‘안 먹어요’(58쪽), ‘먹기 싫어’(211, 213쪽)이다. 완고하게 반(反)접생의 의사 표시를 한다. 누군가가 말을 걸지 않으면 먼저 발화하는 일이 거의 없는 영혜가 자발적(自發的)으로 내뱉은 말이다.

붓다가 외부의 대상(他力)에 매달려 스스로 서려 하지 않는 태도를 어리석다고 비판하였는데 영혜는 수많은 간섭과 침해로부터 자신의 몸에 대한 주체성(主體性), 자신의 생에 대한 자주성(自主性)을 지켜 내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된다. 완전한 자유를 달성하였음, 즉 해탈의 단계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영혜의 의식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영혜의 절식과 탈의는 동기가 불분명한 정신병적 증상으로 판정되는데 실제로 그녀는 미치지 않았다. 남편이 보기에 영혜는 꿈 때문에 육류를 끊고 불면증이 생겼으나 어느 때와 같이 행동하였으며 어떤 광기에 사로잡혔다고 보기 어려웠다. 언니나 형부, 원무과 직원 등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영혜는 체중만 크게 감소하였을 뿐 정신 상태는 보통 사람과 구별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분명하게 깨어 있었다.

어쩌면 그녀의 내면에서는 아주 끔찍한 것,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 단지 그것과 일상을 병행한다는 것만으로 힘에 부친 것인지도 몰랐다. 그래서 일상에서는 호기심을 갖거나 탐색하거나 일일이 반응할 만한 에너지가 남아 있지 않은 건지도 몰랐다. 그런 짐작을 하게 되는 것은 이따금 그녀의 눈이 단지 수동적이거나 백치스러운 담담함이 아니라 어떤 격렬함을, 동시에 그것을 자제하는 힘을 머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sup>30)</sup>

의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말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 어제까지는 강제로 병실에 들여보냈는데 그래봤자 병실에서 다시 물구나무를 서니……<sup>31)</sup>

혼자 남은 그녀는 쪼그려 앉아 영혜와 눈을 맞추려 했다. 누구든 거꾸로 셨을 때의 얼굴은 바로 셨을 때의 얼굴과 달라 보인다. 별로 살이 없는 편인데도 영혜의 얼굴은 피부가 아래로 밀려 기이해 보였다. 생생히 번쩍이는 눈으로 영혜는 허공의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온 것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았다.<sup>32)</sup>

외견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모든 근육이 빽빽하게 긴장돼 있어요. 의식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식을 어딘가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를 억지로 깨뜨릴 때의 반응을 보시면 완전히 깨어 있었다는 걸 아실 겁니다.<sup>33)</sup>

의사의 말이 맞았다. 영혜의 의식은 분명하게 깨어 있었다. 그토록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영혜의 몸짓은 크고 거칠다.<sup>34)</sup>

어떤 격렬함과 그것을 자제하는 힘을 머금은 영혜의 눈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바른길을 따르려는 의지를 반영한다. 표면상 바깥세상에 흥미가 없고 의식조차 없어 보이지만 또렷하게 마음속 어딘가에 집중하고 있다. 눈뜬 이라는 본뜻의 봇다처럼 생생하게 눈을 뜨고 무언가를 응시하며

---

30) 한강, 앞의 책, 2007, 105쪽.

31) 한강, 위의 책, 177쪽.

32) 한강, 위의 책, 178쪽.

33) 한강, 위의 책, 209쪽.

34) 한강, 위의 책, 210쪽.

완전히 깨어 있는 상태로 물구나무서기를 지속한다.

#### IV. 무아론

무아론(無我論, no-self theory)은 사성제와 마찬가지로 봇다가 보리수 밑에서 깨친 진리에서 기원한다. 최초로 설파한 가르침 중 하나로, 불교의 중심적인 교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교법(教法)은 개인을 강조하고 개체의 실재성(實在性)을 의심하지 않는 서구 문화권의 입장과 대조된다. 우주 만물에 고정불변(固定不變)하는 실체(實體)가 없기 때문에 자아란 환상적인 개념이라고 본다. 나란 몸을 구성하는 물질인 색, 감각 기관인 수, 지각 기관인 상, 의지적인 행위의 주관적인 행, 총체적인 의식인 식의 오온(五蘊)이 합쳐진 존재일 뿐이라고 여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명 세계(無明世界)의 중생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나와 내 것에 집착하며 괴로움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이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무아성(無我性)을 자각하고 무아행(無我行)을 수양(修養)하여 해결될 수 있다. 나란 원래부터 없는 것이니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채식주의자』의 영혜는 변이에 변이를 거듭한다. 주지하다시피 영혜는 동물에서 식물로, 인간에서 비인간적인 생물로 바뀌어 간다. 영혜의 가족은 육식주의자들이었고 영혜도 식성이 좋은 편이었다. 어릴 적 고통스럽게 죽은 개를 태연하게 먹은 일이나 고기를 손질하다가 벤 손을 입속에 넣자 피의 들큼한 맛이 마음을 편안하게 진정시켰다는 고백, 자신의 부주의로 남편이 칼을 삼켜 죽을 뻔했지만 무덤덤했다는 고백, 때로 남편에게 먼저 잠자리를 청하였다는 사실 등은 그녀의 동물적인 속성을 나타낸다.

채식을 선언한 다음에도 영혜의 욕구는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 꿈에서 살해할 때, 일상에서 비둘기나 고양이를 죽이고 싶어질 때, 정육점 앞을 지날 때 입안에 고인 침이 입 밖으로 흘러넘치려 한다는 고백이나 병원에서

포식자처럼 작은 동박새를 물어뜯은 일은 폭력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음을 함축한다.

한편 피와 시체로 가득 찬 꿈 때문에 오 분 이상 잠을 잘 수 없다는 고백, 손과 발, 이빨, 혀 따위가 맹수처럼 무엇이든지 해칠 수 있는 무기가 되어 있을까 봐 두려워서 잠시도 의식을 놓을 수 없다는 고백, 그에 반해 아무것도 죽일 수 없는 젖가슴 덕분에 안심된다는 고백, 칼로 그어 피가 분출된 손목보다 목숨들이 달라붙은 명치에 통증을 느낀다는 진술은 그와 대비된다.

육식 혐오와 갈망, 불살생과 살생, 탈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분열(分裂)됨을 보여 준다. 단편적으로 온순한 젖가슴을 드러내고 사나운 이빨로 동물을 해하는 장면에 그 역설이 잘 담겨 있다. 영혜는 스스로를 낯설게 느낀다. 날고기의 붉은 피와 물컹한 식감을 생생하게 느끼던 꿈에서 피 용덩이에 비친 자신을 직면하자 처음 보는 사람같이 그 얼굴이 낯설었다. 두 번째 꿈을 꾸고 나서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진다. 나라는 찰나(刹那)적인 존재, 그리고 세상 만물이 그렇다는 사실(諸行無常)은 익숙한 것을 익숙하지 않게 만든다.

영혜가 본인을 낯설게 느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주변인들도 달라져 가는 영혜에게 거리감(距離感)을 느낀다. 오 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한 남편도 영혜를 낯설어한다. 영혜가 꿈을 꾸고 이상 행동을 보일 때 오싹한 추위와 섬뜩함이 느껴졌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냉정하게 번쩍이는 아내의 눈을 보았고 다시 잠자리로 돌아간 영혜를 만지고 싶지도, 그녀에게 말을 걸고 싶지도 않았다.

꿈을 탓하면서 온갖 육류를 내버릴 때도 그 얼굴이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게 각인된다. 아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자해 소동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아내는 이 여자, 이상하고 무서운 여자로 지시된다. 병원 분수대 앞 의자에서 반라로 새를 물어뜯은 영혜를 멀찍이 바라보며 자기는 저 여자를 모른다고 다시금 되된다.

모성애와 같은 책임감으로 영혜를 돌봐 왔고 유일하게 끝까지 영혜를

떠나지 않은 언니도 그와 같이 느낀다. 그녀는 영혜가 육식을 하던 시절부터 채식주의자가 된 시기, 거식증을 앓는 시간까지 변천(變遷) 과정을 전부 지켜보지만 심리적 친밀감(心理的親密感)은 떨어진다. 과거에도 인혜는 심증을 파악하기 힘든 영혜가 타인(他人)처럼 느껴지곤 했다. 서로 의중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는 물론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화 중에도 낯선 시선이 오고 갔다. 꽃 그림으로 에워싸인 영혜의 몸은 이질적(異質的)인 생명체같이 기괴(奇怪)했으며 물구나무선 얼굴은 기이(奇異)해 보였다.

영혜와 접점이 많지 않은 형부의 경우, 여러 층위로 낯섦을 느낀다. 첫 만남 때 영혜에게서 가치를 치지 않은 야생 나무 같은 힘이 느껴졌고 아내와 미묘하게 다름이 감지되었다. 영혜의 몽고반점은 상상하면서 주체되지 않는 성욕(性慾)을 경험할 적에는 스스로가 정상인가, 도덕적인가, 통제력이 있는가 하고 자문하며 낯선 경험을 한다. 확고하게 알고 있다고 믿었던 그 질문들의 답을 알 수 없게 된다.

뜻밖에 실제 몽고반점은 성적 느낌과 무관하였고 본질(本質)적인 것, 원초(原初)적인 것에 가까웠으며 식물적인 무언가를 연상시켰다. 영혜의 맨몸은 아무 탐이 없는 몸이었다. 근 일 년간 집요하게 들끓던 성욕마저 누그러뜨릴 만큼 기이하고 덧없지만 힘이 있는 몸이었다. 영혜가 식물로 변이하는 광경을 가까이에서 목격하며 인간과 동식물의 중간적 존재(中間的存在)로서 그녀를 인식한다.

영혜와 그 외의 것들이 낯설게 인지됨은 존재의 가변성(可變性)을 함의한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다 분명하게 포착된다. 「채식주의자」에서 「몽고반점」으로, 「몽고반점」에서 「나무불꽃」으로의 전개는 기본적으로 시간 순행적이며 소설의 마지막 장인 「나무불꽃」에서는 그것을 반복되는 문장으로 명시하였다.

시간은 흐른다.<sup>35)</sup>

시간은 여전히 흐른다.<sup>36)</sup>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sup>37)</sup>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sup>38)</sup>

현실 세계에서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며 영혜는 죽어 간다. 그러나 영혜의 영혼은 그녀의 상상 속에서, 또 다른 시공간에서 나무가 되어 간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영혜의 정체성은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이행되고 죽음마저도 새로운 생명으로 돌아간다. 온갖 것이 변해 간다.<sup>39)</sup>

그 설정은 이미 예견되었듯이 마지막 장면에 있다. 인혜의 뇌리에 박힌 캄캄한 숲, 검은 벚발 속 영혜의 모습은 그것을 떨치려 할 때 초록빛 불꽃을 뿜는 나무들로 대체된다. 일종의 복선과도 같은 이것이 암시한 대로 영혜가 죽어 가는 순간과 초록빛의 나무 불꽃 이미지가 중첩되며 이야기는 종결된다. 그렇게 존재가 멸하고 생성된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영속적이지 않다(諸行無常). 영혜는 누구인가? 실체가 없이 계속 변화하는 무언가라는 설명만이 가능할 것이다.

영혜가 그 사실을 깨달았음을 의미심장하다. 전언한바, 꽃 칠의 보디 페인팅 작업은 그녀에게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었다. 악몽에 등장

---

35) 한강, 위의 책, 187-188쪽.

36) 한강, 위의 책, 195쪽.

37) 한강, 위의 책, 202, 206쪽.

38) 한강, 위의 책, 207쪽.

39) 무아론은 그것을 잇는 대승 불교의 공 사상과 맞닿아 있으며 중론 학파의 철학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即空 空即色)과도 연결된다. 풀어 설명하면 영혜가 인간인지 아닌지, 색인지 공인지 분별하지 말고(不二) 한뜻(一義)으로 관조하는 자세를 취하라는 것이다. 또 현실과 상상은 각각 대승 불교에서 일컫는 물질의 현상계(現象界)인 사법계(事法界)와 원리의 본체계(本體界)인 이법계(理法界)에 빗댈 수 있다.

한 수많은 얼굴들이 뱃속에서 올라온 영혜 본인의 얼굴임을 알아차린 사건을 가리킨다. 매번 달라져 누구의 얼굴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나라는 실체가 없음을 의미하고 그것을 깨친 영혜는 대자유의 길로 접어든다(涅槃寂靜). 그녀의 이름, 영혜가 함축하고 있듯이 영(零)의 상태가 되어 영(永)원히 살아 있는 영(靈)혼이 된다.

## V. 연기론

연기론(緣起論, dependent origination theory)도 붓다가 보리수 밑에서 깨친 진리이며 무아론과 항상 함께 논해지는 핵심 교리이다. 이 교법은 서양 종교 철학의 신과 같이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를 부정한다.<sup>40)</sup> 모든 사물이 인과 관계(因果關係)로 얹혀 있고 상호 의존적(相互依存的)이라고 설명한다. 우주 만물은 직접적 원인인 인(因)과 간접적 원인인 연(緣)이 결합해 사물을 이루고 결합력이 다하면 다시 다른 인과 연을 만나면서 계속 변해 간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독자적(獨自的)일 수도 항구적(恒久的)일 수도 없다.

앞에서 다룬 사성제 체계도 원인과 결과의 원리를 따른다. 「채식주의자」에서 살생을 당연하고 쉽게 여겨 온 과거는 현재 영혜의 체내에 뭉쳐져 박힌 목숨들이라는 상흔을 남긴다. 그 혼적은 죽고 죽이는 꿈들로 이어져 생명 파괴에 대한 죄책감을 유발한다. 영혜로 하여금 고뇌는 어디에서 시작 되는가 하는 궁극적인 문제와 어떻게 끝내는가 하는 해결 방법을 궁리하게 만든다. 첫 시도는 채식이다. 그러나 채식을 해도 얼굴 꿈은 계속된다.

형부의 제의로 참여하게 된 예술 작업에서 해결법을 알아낸다. 정확하게 는 꽃 그림의 보디 페인팅이 촉매제가 된다. 꽃을 그리고 나서 꿈을 꾸지

---

40) 최준식, 앞의 책, 2005, 298쪽.

않게 되자 스스로가 식물로 변신해야 함을 깨닫는다. 육류 끊기로는 충분하지 않고 인간의 껍질을 벗겨 버려야 하는 것이다. 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소비하는 음식을 일절 거부하고 나무처럼 물과 햇볕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생각과 언어가 소실되고 내장이 다 퇴화되어 가는데 어린아이로 퇴행, 그로 인한 죽음은 대자유라는 결과를 예고한다.

영혜의 일생은 모든 찰나가 인연으로 생겨나고 사라진다. 인연의 이치(理致)는 다른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각 단편의 주체는 영혜와 관계를 맺으며 영향을 받는다. 공통적인 반응은 꿈이다. 영혜가 살생의 죄의식에 고통을 겪을 때 동거하던 남편은 누군가를 살인하는 꿈을꾼다. 할복하고 내장을 꺼내고 살과 근육을 빌라 빼만 남긴다. 꿈에서 깨어나 이상하리만치 고요하게 잠을 자는 영혜를 발견한다. 떨림을 느끼며 영혜의 생사를 확인한다.

평범함에 대한 열망, 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불만, 제 뜻을 거스르는 아내를 향한 분노 따위가 극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영혜는 유사한 꿈으로 잔인성을 자각하였으나 속물의 상징과도 같은 그는 다른 반응을 보인다. 일순 떨림을 느끼는 데에 그친다. 탐욕, 진애, 우치의 삼독(三毒)에 빠져 사는 중생의 모습이다. 남편은 영혜의 식물화가 본격화되기 전에 그녀를 떠났기 때문에 그의 변모(變貌) 여부는 알 수 없다.<sup>41)</sup> 인과연이 만나고 헤어짐을 되풀이하는 것과 같이 새로운 인과 관계 속에서 달라질 것이다.

영혜가 꽂이 되고자 할 때 교감하던 형부는 연둣빛 몸의 여자와 성교하는 꿈을꾼다. 얼굴께에서 광원이 빌하여 가슴 위로는 보이지 않았고 엉덩이에 뚫고 반점이 없었으니 영혜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전후 맥락상 영혜가 연상된다. 정체 모를 그녀와 육체적으로 결합될 때 그녀와 자신의 음부에서 초록빛

41) 대승 불교에서는 불성 혹은 여래장 사상(如來藏思想)이라 하며 진여(眞如)는 항상 편재하고 있으므로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설하였다. 이 시각에 의하면 남편에게도 본래의 불성을 회복할 여지가 있겠다. 다만 이 교설(敎說)을 지지하더라도 그가 피안(彼岸)의 언덕으로 건너가려면 영혜가 겪은 분열과 영겁(永劫)의 수행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의 싱그러운 즐이 흘러내렸고 그들의 생식기가 온통 푸르죽죽하게 물들었다. 향긋하면서도 씁쓸한 풀 냄새를 풍겼다.

몽고반점이 촉발한 이 꿈은 그다음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의 과격한 변화를 살펴보기에 앞서 꿈의 원인이었던 몽고반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비디오 아트(video art) 작가인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절실하던 무렵 우연히 아내에게서 영혜 둔부에 찍힌 몽고반점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 즉시 몽고반점은 남녀가 꽃 칠이 된 나체로 성교하는 이미지와 하나의 인과 관계로 묶여 뇌리에 새겨진다. 오로지 그것만이 전부라 여기며 강렬한 이끌림에 휩싸인다. 결국 그의 억누를 수 없는 성애(性愛)의 꿈은 현실이 된다.

영혜와의 인연은 몽고반점이 일으킨 애욕(愛慾)에만 있지 않다. 가족 모임 날 손목에서 피가 솟구치는 영혜를 들쳐 업은 일은 예술가로서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꾼다. 혼절한 영혜가 응급 치료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무엇인가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소리를 듣는다.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몰아치고 생의 의미에 물음이 듦다.

영혜의 피에 흠뻑 젖은 흰 셔츠가 피비린내를 발산할 때 마지막으로 마무리한 작품이 떠오르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밀려든다. 그동안 그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모되고 찢긴 인간의 일상을 주제로 하는 비디오 아트에 매달려 왔는데 그 시간들이 폭력으로 느껴졌고 구역질이 났다. 그의 작업물에는 영혜의 행동과 같은 진정성이 없었던 것이다. 삶과 삶이 담긴 것들에 넌더리가 났고 십여 년간 만들어 낸 결과물들은 그가 아니라 그가 알았던 혹은 있다고 믿었던 어떤 사람의 것이 된다. 그리고 몽고반점이라는 심상이 그에게 올 때까지 공백 기간을 가지게 된다.

한편 영혜의 몸에 꽃을 칠할 때 사십 년 넘게 느껴 본 적이 없는 희열을 느낀다. 그녀를 영상에 담아내며 새로운 감각이 깨어난다. 무수한 색채들이 몸속을 가득 채우다 못해 분출된다. 그는 이제 흑백의 세계와 전혀 다른 세상으로 들어선다. 어두웠고 어두운 곳에 있었던 그는 사라지고 생기 있는

색들로 가득한 곳에서 그가 생겨난다. 그의 아내의 말을 인용하면 그는 과장이나 아첨을 할 줄 모르는, 올곧고 고지식한 사람이었다. 영혜라는 원인으로 그가 변하자 아내는 여태까지 알고 있던 그는 그림자였음을 직시하게 되고 그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된다.

예술계에서도 의식 있고 강직한 성직자에 비유되던 그의 파격적인 변신은 충격과 놀라움을 자아내는데 그가 만든 영상만큼은 흥분 섞인 호감과 흥미를 끌어낸다. 그러나 피사체가 처제라는 사실은 철저히 숨겨야 하는 비밀이었기에 전시할 수 없는 또는 발표되어서는 안 되는 작업물이었다. 그는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에 도달하는데 거기에서 그만둘 수 없었고 그만두고 싶지 않았다. 봉고반점 1은 봉고반점 2로 이어지고 그의 집착은 극단으로 치닫는다.

꽃으로 덮인 몸의 교합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는 그의 발언은 만족을 모르는 과욕(過慾)을, 모든 것을 겪고 늙어 버렸고 당장 죽는다고 해도 두렵지 않다는 발언은 쾌락의 극한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말초적(末梢的)이고 감각적(感覺的)인 즐거움은 결코 완벽히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의존하면 영적 파멸(靈的破滅)을 면치 못한다는 봇다의 지적<sup>42)</sup>과 같이 용인되지 않는 욕심과 어리석은 선택은 업보가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그는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수개월 후 풀려난 뒤에 잠적해 버린다. 전화 연결도 불안정한 곳에서 두문불출하며 산다. 그가 가진 전부를 상실하게 된다.

죽어도 좋고 죽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정적인 순간 그는 살기를 선택한다. 불행만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생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에 연연할 때 때문이다. 그 후 아들 지우를 그리워하며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게 된다(愛別離苦). 영혜의 남편과 마찬가지로 그는 삼독에 빠진 중생의 모습을 표상한다. 그의 변모 양상 또한 확인할 길이 없다. 분명한 사실은 그와 그의 삶이 그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뿐이다.

---

42) 최준식, 앞의 책, 2005, 269-270쪽.

단 한 가지 차이점은 형부에게는 양가감정(兩價感情)이 공존한다는 점이다. 처제와의 불륜을 떠올리며 두려움, 불안감, 증오감에 과문하고 고통스럽게 번민하면서도 그 강력하게 매혹적인 심상으로부터 달아나지 못한다. 가장 추악하면서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의 끔찍한 결합임을 실토힐다. 신성한 느낌을 자아내는 영혜의 몸을, 자연의 생명력을 머금은 몽고반점을 바라보며 그 고결함에 애욕이 상쇄되고 세속적인 동서가 영혜를 탐했다는 상상에 염오감과 수치심을 느낀다. 처제와의 정사를 앞두고 그의 머릿속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와 죽어 버리라는 목소리가 맴돌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자 야수(野獸)같이 으르렁거리며 영혜에게 달려들고 금수(禽獸)같이 헐떡거리며 관계를 맺는다.

그의 양면성은 영혜가 채식 선언을 하고 나서 한동안 동물성(動物性)을 극복하지 못한 시기에 동박새를 물어뜯어 죽인 장면과 겹친다. 인생의 반을 향락에 힘들되었다가 속세에 미련을 끊고 종교의 길에 매진하게 된 봉다의 생애를 떠올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향후 그의 삶은 어떤 결말도 단정 지을 수 없겠다. 아울러 주어진 정황만을 따져 보면 표면적으로 그의 삶은 고통이나 역설적이게도 자기 자신과 그의 것이었던 온갖 것에서 자유로워진 삶이기도 하다. 그가 이 무아의 이치를 깨뚫어 보게 된다면 무명 세계에 갇혀 살지 않게 될 것이다.<sup>43)</sup>

유일하게 영혜의 모든 변천을 목격한 언니는 검은 비가 내리는 숲, 영혜의 목소리, 선혈이 흘러내리는 자기의 얼굴 꿈을 꾼다. 비가 쏟아지던 날 실종되

---

43) 자애(慈愛) 혹은 자비의 종교라는 수식어가 붙는 불교에서는 차별(差別)을 지양한다. 가령 화엄 교학에서는 현실 세계를 무조건적으로 긍정하고 이 세계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김교빈 외, 『(함께 읽는) 동양철학』, 지식의 날개, 2006, 166쪽. 불교적 관점을 따르는 이 연구에서는 긍정(肯定)이나 부정(否定)의 가치 판단을 유보하고 무아와 연기의 원리만이 적용된다고 본다. 또 앞서 모두에게 청정(淸淨)한 마음의 본성이 있다는 대승 불교의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그에게도 성불(成佛)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하겠다.

었던 영혜는 산에서 발견되는데 그날 밤부터 꿈이 시작된다. 까만 비가 내리는 까만 숲에 어둠과 물의 덩어리가 되어 버린 영혜가 귀신처럼 우뚝 서 있다. 돌연 영혜의 목소리가 들린다. 물구나무를 서자 잎사귀가 나고 뿌리가 돋았으며 사타구니에서 꽃이 피어나려고 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욕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다. 왼쪽 눈에서 피가 흘러내려 닦아 내지만 거울 속 여자는 피가 흐르는 눈을 우두커니 쳐다본다.

영혜가 그러하였듯이 이 꿈들은 무수히 되풀이되어 인혜는 세 달이 되도록 한 시간 이상 잠을 자지 못하게 된다.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꿈의 인상들이 그녀를 덮친다. 영혜가 등장하는 꿈들은 영혜의 앞날을 예보한다. 귀신 형체로 어두운 숲에 있던 영혜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꽃나무가 되고 있다는 소리만 들리는 것은 인혜가 무의식중에 동생의 죽음과 환생을 감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대한 짐승에 비유되는 나무와 나무가 되어 가는 영혜의 짐승 같은 목소리, 병원 안뜰의 고목과 그에 중첩되는 영혜의 형상<sup>44)</sup>도 이를 방증한다.

자신의 얼굴 꿈은 보다 직접적으로 그녀의 생에 대한 각성을 촉구한다. 이미 영혜의 자해 소동 무렵 인지하였던 사실을 환기시킨다. 한 달 가까이 하혈하면서 인혜는 영혜의 손목에서 솟구치던 선혈을 떠올린다. 병원에 가는 길에 문득 진실로 살아 본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듈다. 유난히 인내력(忍耐力)이 강한 인(忍)혜는 여태껏 견뎌 왔고 평생 죽은 채 살아왔음을, 그녀의 삶은 허상(虛像)이었음을 알아차린다.

죽을병을 각오하고 방문한 산부인과에서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44) 영혜는 외적으로 동물 같기 같은 머리칼을 하고 야수 같은 소리를 내지만 내적으로는 청정한 마음 도야(陶冶)에 정진한다. 그런가 하면 금수 같은 나무로 환유되기도 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외면과 내면 혹은 육신과 정신이 별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상반된 가치에 차등(差等) 없는 자애의 발현이라 하겠다. 반대 개념 간 경계를 허문다는 측면에서 생사윤회나 한국 불교 특유의 원융회통(圓融會通)과도 연계된다.

듣고 기쁘지 않다. 살아야 할 시간이 기한 없이 남았음에 오히려 고통을 느낀다. 차츰 몸의 상처는 아물어 갔지만 구멍처럼 뚫린 내부의 상처는 인혜를 줄곧 집어삼킨다.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기차 차체에 몸을 내던질 것 같은 충동, 식사를 하다가 젓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싶은 충동, 주전자의 끓는 물을 머리에 뿜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살아간다.

매 순간 인내하고 견디며 심신이 너덜너덜해진다. 피로감에 짓눌리고 무덤처럼 지쳐 버린다. 갑자기 집이 몸을 옥죄는 압박감, 흉통과 호흡 곤란을 느끼며 그 집이, 그녀의 삶이 자기의 것이 아님을 실감한다. 죽음이 친숙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지금껏 그려하였듯이 그 순간만 참고 넘기는 식으로 살아간다. 행방불명되었던 영혜를 빗속 숲에서 찾게 되기 전까지 성실(誠實)의 관성(慣性)으로 나아간다. 그러던 중 병원으로 되돌아온 영혜의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는데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인혜의 악몽이 시작된다. 그녀의 인내심(忍耐心)은 다시 한번 시험받게 된다.

왜 죽으면 안 되느냐고 하는 영혜의 질문은 또 다른 고통을 자극한다. 그녀가 영혜에게 가지고 있던 부채감(負債感)이다. 살생이 영혜의 원죄였다면 인혜의 경우 아버지의 손찌검을 동생이 대신 감수하도록 만든 비겁함이었다. 말괄로서 성실함을 가장해 아버지에게 술국을 끓여 주고 보필하며 아버지의 거친 손을 피하였고 온순하고 고지식해 아무 반항도 못 하는 영혜가 홀로 감내하도록 둔 것이다. 여기에 퇴원을 권유하는 의사의 의견에 반대하며 영혜를 병원에 가두었다는 죄의식이 얹어진다.

영혜가 아니었다면 그녀가 감당해야 할 뜻일 수 있었다. 모두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혼자서 저편으로 건너간 동생의 무책임을 용서할 수 없어 은밀히 미워하면서도 영혜가 자신의 남편과 경계를 넘지 않았다면 영혜가 토한 피는 그녀의 가슴에서 터져 나왔어야 할 피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한다.

어릴 적 집에 돌아가지 말자고 하는 영혜의 말을 성인이 되어서야 헤아리게 되고 불면과 괴로움을 겪으며 이미 그것을 거친 영혜에게 이입된다. 산에서 길을 잊은 날 영영 집을 떠났다면,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말렸다면, 영혜의 결혼을 만류했다면, 전남편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하고 인혜는 가정한다. 영혜의 칼을, 남편이 피 흘리는 영혜를 업고 병원까지 간 일을, 제부가 퇴원한 영혜를 버린 것을, 남편이 영혜에게 저지른 짓을 막을 수 없었을까 하고 자문한다. 원인이 되었을 변수들에 부질없이 골몰한다.

수동적(受動的)이고 복종적(僕從的)으로 지내 온 삶을 더는 참아 내지 못할 지경이 되자 자살 충동이 일어난다. 그녀는 두려움과 괴로움에 휩싸이는 동시에 이상한 평화를 느낀다. 죽는다는 공포감과 자유로워진다는 해방감이 공존한다. 그러나 그녀의 목숨을 받아 줄 나무를 찾지 못하고 산에서 돌아온다. 아들 지우를 생각하여, 아들을 향한 책임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같은 날 아침에 인혜의 아들은 그녀가 하얀 새로 변이하는 꿈을 꾸고 슬퍼서 울음을 터뜨린다. 그날을 회상하며 쉽게 아이를 버리려 한 자신의 무책임함을 책망한다.

평생 인내와 배려로 견뎌 온 인혜는 선량하고 성실한 인간이다. 비록 그녀의 남편이나 영혜의 남편과 차이가 있지만 그녀도 우치를 극복하지 못하고 고통에 시달리는 일개의 중생에 지나지 않는다.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듯이 괴로움의 원인은 죽음 같은 삶에 있다. 그렇다면 고통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능동적(能動的)이고 독립적(獨立的)으로 사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현실 도피 수단으로써 자살을 생각하거나 이전과 똑같은 방식을 고수하여 괴로움에서 해독되지 못한다.<sup>45)</sup>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매몰되어 본인을 괴롭힐 따름이다. 끝까지 현실이 아니라 꿈이라고 영혜에게,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

환언하면 인혜의 남편이 묘사한 대로 인혜와 영혜는 자매이지만 다른

---

45) 영혜의 죽음은 궁정되나 인혜의 죽음은 부정되는 것은 고통 해결을 위한 적극성과 소극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그러한 이중성(二重性)은 죽음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불법계에서 역설하는 중도적(中道的) 마음가짐이라 하겠다.

기질을 지녔다. 그하여 같은 자극에도 다른 반응을 보인다. 꿈이 변신을 촉구하여 바른길로 나아간 영혜와 달리 인혜는 그저 도망치거나 억제하려 할 뿐이다. 그럼에도 인혜에게도 변화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푸른 불길의 나무숲이 그녀의 지친 몸을 감싸고 타오르는 꿈은 희망을 남겨 두고 있다. 현실에서도 새벽녘 푸른빛을 뿜는 나무들은 그녀의 자살 시도를 저지시키며 바른길로 인도하려고 한다. 인혜는 당시 나무의 말을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무자비하고 서늘한 말이었다고 기억하는데 스스로 목숨을 버리려는 자를 일깨워 주는 생명의 소리였기 때문이다. 이는 아이를 두고 세상을 떠나려고 한 행동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도 없고 용서를 구할 수도 없는 죄라고 자책한 것에서 유추될 수 있다.

또 인혜가 나무와 숲, 산에 거듭 시선을 빼앗기는 것은 영혜의 습관과 같다. 영혜가 나무를 쳐다보는 데에 그치지 않고 격렬하게 변이하였듯이 인혜도 언젠가 자립적(自立的)인 생을 구현해 낼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아직 인혜는 침묵하는 숲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건네는 나무를 눈길로만 넘지시 죽을 뿐이지만 그녀 또한 외계에 종속(從屬)되지 않고 자신의 두 다리로 서게 된다면 대자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VII. 나오며

지금까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불교적 기호로 분석하여 보았다. 초기 불교(初期佛教)에서 시발하여 종파 불문 근본으로 자리 잡은 봇다의 가르침 네 가지를 불교적 기호로 설정하였다. 첫째, 불살생이다. 채식주의자라는 표제에서부터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제1 계율을 담고 있다. 주인공 영혜의 채식과 무식, 상반신 노출은 약육강식 세태를 비판하고 온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불교도의 태도와 일맥상통한다.

둘째, 사성제이다. 사고팔고(四苦八苦)라는 말과 같이 영혜의 일생은 고통

이며 그 원인은 생명 파괴의 죄악감(罪惡感)이었다. 해탈을 위해 그녀가 택한 바른길은 짐승의 거죽을 벗겨내는 것이었다. 채식과 거식부터 햇빛 흡수, 꽃 칠, 물구나무서기까지 수년에 걸쳐 수행한다. 의식이 또렷하게 깨어 있는 채로 마음을 성찰(省察)하며 자주적(自主的)으로 아를 절멸시키고 참자유를 얻게 된다. 불꽃을 피우는 나무같이 빛을 내며 비(非)존재로서 존재하게 된다.

셋째, 무아론이다. 태생적으로 야생 식물의 기운을 내뿜는 영혜는 영속적인 실체 없이 역동적으로 변신해 나간다. 영혜에 대하여 그녀의 남편, 언니, 형부, 자기 자신까지도 낯섦을 체험한다. 우주 만물이 그러하듯이 영혜는 한순간도 멈춰 있지 않고 변해 가고(念念生滅) 그것을 통찰한 그녀는 열반에 근접해 간다.

넷째, 연기론이다. 영혜의 생애에 연기법(緣起法)이 적용됨은 물론 영혜와 인연을 맺은 주변인들도 영혜와 서로 인과 관계로 얹힌다. 세속성(世俗性)이 강한 남편에 비해 형부와 언니는 영혜에게 보다 큰 영향을 받는다. 영혜의 자해는 그들에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들은 번뇌한다. 영혜 꿈은 그들의 반응을 재촉하는데 형부는 지나친 욕정(欲情)으로, 언니는 지나친 절제(節制)로 대응한다. 어느 편이든지 중도를 지키지 못하는 중생의 표본이라 하겠다.

소설을 끝마치며 한강은 우리에게 묻는다. 고행 끝에 인간이 아니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결백(潔白)해질 수 있는가? 그녀는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독자들로 하여금 사유해 보게 한다.<sup>46)</sup> 본 연구에서는 불교적 입장에서 영혜 외 세 명의 중생에게도 구제(救濟)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해석한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그 이치가 적용된다고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스스로

46) 한강이 『채식주의자』를 쓰며 가장 고민한 것은 인간의 폭력성에 관한 질문, 즉 인간이 결백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무서운 질문이었다. 그와 관련하여 그녀는 소설 끝에 무엇인가에 항의하듯, 대답을 기다리듯 나무를 보는 인혜의 시선을 중요한 장면으로 꼽았다. 그처럼 『채식주의자』가 무엇인가에 항의하고 대답을 기다리는 소설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한강·강수미·신형철, 앞의 논문, 2016, 26쪽.

의 힘으로 아예 집착을 버린다면 궁극의 자유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소설 『채식주의자』에 대하여 그간 전무하였던 종교적 해설(宗教的解說)을 시도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한국의 다양한 문학 작품과 여러 예술 장르를 한국학적 기호(韓國學的記號)로 고찰하는 연구들이 후속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김교빈 외, 『(함께 읽는) 동양철학』, 지식의 날개, 2006.
- 김미영, 「음식의 문학적 재현과 주체화의 방식 -한강과 오수연의 소설에 나타난 '음식'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59, 2018, 239-270쪽.
- 김연수, 「사랑이 아닌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강과의 대화-」, 『창작과 비평』 42(3), 2014, 311-332쪽.
- 김재경, 「소설에 나타난 음식과 권력의 문화기호학 -김이태 「식성」과 한강「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2, 2009, 251-281쪽.
- 김지훈, 「한강의 「채식주의자」에 나타난 자기서사와 자기실현의 문제 -서사의 주체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73, 2016, 507-531쪽.
- 신수정, 「한강 소설에 나타나는 '채식'의 의미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문학과 환경』 9(2), 2010, 193-211쪽.
- 안인영, 「한·파 수교 40주년 기념 문화유산 사진전 개최」, 『한국문화재단』, 2023. 10. 27., <https://www.kh.or.kr/>, 2025. 03. 09. 접속.
- 우미영, 「주체화의 역설과 우울증적 주체 -한강의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 연구』 30, 2013, 451-481쪽.
- 윤정화, 「한강 소설에 나타나는 '흰' 색채 이미지와 변이 양상」, 『비평문학』 78, 2020, 239-274쪽.
- 이귀우, 「음식 소비와 (여)성: 한강의 '채식주의자'의 바틀비적 저항」, 『여성연구 논총』 26, 2011, 135-158쪽.
- 이찬규·이은지, 「한강의 작품 속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 연구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46, 2010, 43-67쪽.
- 장세훈, 「소설가 한강 '아기부처' -삼계화택 잠재운 관음미소-」, 『주간불교』, 2005. 11. 12., <http://www.bulgyonews.co.kr/news/9454>, 2025. 03. 24. 접속
- 조성해, 「이불의 <화엄> 연작에 대한 불교적 기호 분석 연구」, 『문화와 융합』 45(7), 2023, 851-865쪽.
- 최준식, 『한국인은 왜 틀을 거부하는가?: 난장과 파격의 미학을 찾아서』, 소나무,

2002.

- \_\_\_\_\_,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 1』, 사계절, 2005.
- \_\_\_\_\_, 『(한국의 종교) 불교』,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 \_\_\_\_\_, 『(최준식 교수의) 세계 종교 이야기: 종교를 알면 세계가 보인다』, 모시는 사람들, 2012.
- 한강, 『채식주의자』, 창비, 2007.
- 한강·강수미·신형철, 「[대담] 한강 소설의 미학적 층위 -『채식주의자』에서 「흰」까지-」, 『문학동네』 23(3), 2016, 1-38쪽.
- 함정임, 「2000년대 한국 소설의 생태학적 고찰 -한강·편혜영·박형서·김태용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9(1), 2010, 213-234쪽.

---

**Abstract**

BUDDHIST SEMIOTIC IN HAN KANG'S  
*THE VEGETARIAN*

CHO SUNGHAI (CHO, SUNG HAI)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Buddhist semiotic in Han Kang's *The Vegetarian*. The core Buddhist doctrines, No Killing, Four Noble Truths, No-self theory, and Dependent Origination theory, are used as the criteria for interpretation. The first is No Killing. The title of the novel contains the precept not to kill life. The main character Young-hye's refusal to eat meat or any food, and taking off her brassiere correspond to the Buddhist attitude of criticizing the law of the jungle and valuing all living things. The second is the Four Noble Truths. Young-hye's life is suffering, and the cause is the guilt of destroying life. In order to be liberated, she practices shedding her human skin. From vegetarianism and fasting to absorbing sunlight, painting flowers on her body, and standing on her head, it takes years of training. With her consciousness clearly awake, she cultivates her mind and independently extinguishes her ego, gaining true freedom. Like a tree emitting flames, she radiates light and becomes a non-existent existence. Third is No-self theory. Young-hye, who innately exudes the energy of wild plants, dynamically transforms without a permanent substance. People around her and even herself feel unfamiliar with her. As all things in the world, Young-hye continues to change, and she

approaches nirvana, realizing this principle. The fourth is Dependent Origination theory. Not only is the dogma applied to Young-hye's life, but the people around her also form a causal relationship with her. Compared to her worldly husband, her brother-in-law and sister are more influenced by her. Young-hye's self-harm raises the question of what life is, and they are anguished. The dreams of Young-hye stimulate them even more, and as a result, her brother-in-law fails to control his desires, and her sister restricts her urges to the extreme. In either case, they are mere sentient beings who cannot find the middle path. The significance of this paper is that it provides an explanation of the novel *The Vegetarian* using religious semiotic. Further examination of Korean literary works and other works of art using Korean semiotic, is suggested.

Key Words : Vegetarian, Buddhism, No Killing, Four Noble Truths, No-self, Dependent Origination

